

## 25년 7월 목회일정

19일(주일) 성찬조별기도회  
27일(주일) 성경체성관련특강(강사:이광원강도사)  
18-19일 유년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본 예배당)  
26-27일 중고청 연합MT(본 예배당)

## 주간소식

환영합니다 예배에 처음 나오신 분을 주 안에서 환영합니다.  
예배 후 담임목사를 만나시고, 돌아가세요

1. 성찬예식 / 매일 예배와 성찬상을 위하여 자신을 살핍시다.  
[본 교회 당회의 허락을 받은 입교인이 참여합니다]
2. 오후예배 / 예배 후 청년회주최 [문화주일-성경으로 영화읽기]  
가 있습니다. 감상영화는 [청설(한국 리메이크)]입니다
3. 초빙설교 / 오늘 오후예배 이광원강도사(본 교회)
4. 2/4분기특별헌금 / 오늘 1/4분기 특별헌금있습니다. 경상버를  
위하여 드리겠습니다.
5. 금요기도회 / 주간기도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6. 가정(개인)기도회 / 밴드에 올려지는 아침묵상과 기도제목,  
주보의 [설교요약지], 가정성경읽기 등을 참고하세요.

7월 예배봉사자 / 교회소식-고충석 봉헌-김명순 안내-김민혁

한 주간도 말씀을 읽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게으르지 마시고,  
전투적인 사명을 다 하며 승리하는 삶 되세요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소속으로  
1997년 1월 개혁주의교회 건설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교회는 이 일을 위해 예배 안에서 참된 교회의 3가지 표지인  
① 진지한 말씀의 강단 구축(설교, 강독)  
② 성례의 정확하고 성실한 거행(세례, 성찬)  
③ 정당하고 올바른 권징의 시행(권고, 치리)을  
애쓰며 노력하는 언약공동체로 자라가고 있습니다.

## 동래언약교회 집회안내

주일 예배	오전	11:00
	오후	15:00
주간 기도 회	아침기도	06:00(월-금)
	수요기도회	09:30
	금요기도회	21:00
	지역기도회	각지역결정
교회 학교	유/SFC	주 13:00
	교회알기	주 13:30
	청년회	주 14:00

## 이 달의 봉사자

	06월	07월
교회소식	김영민	고충석
봉 헌	김용대	김명순
안 내	이광원	김민혁

## 평균케 하는 원리

후원	개혁정론(고신 개혁 언론)
	파서교회(고신,강인중)
선교	외국인근로자선교회(이요한)
	김성옥선교사(특수지역-M국)
구제	곡성연합교회(최지혁)
	부산장애인전도협회(정용균)
장학	고려신학대학원(기동원원장)

## 교회봉사자

- 시무목사 / 최성림 양주동
- 시무장로 / 김영민 고충석
- 시무집사 / 이경준 김낙형
- 반 주 / 문경실

주후 2025.06.29.(제29-26호)

주와 그 은혜의 말씀의 터 위에 든든히 서 가는 교회(행20:32)



대한예수교  
장로회

# 동래언약교회

DONGNAE COVENANT *presbyterian* Church

## 주일오전예배

오전11시

인도 최성림 목사  
설교 최성림 목사

교회소식

## 개회

\* 예배에로의부름 ↑ 시66:1-2(교송)  
인도자: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회 중: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 축복의인사 ↓ 고전1:3(인도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좇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 경배찬송 ↑ 시편98편(1-2)

## 죄의고백

\* 십계명봉독 ↓ 신 5장(주계명/봉독)  
\* 죄의공적고백 ↑ 제10형  
\* 용서의은혜의선포 ↓ 인도자  
\* 감사찬송 ↑ 찬송가12장(1)

## 말씀봉사

설교를위한기도 ↑ 인도자  
성경봉독 ↓ 사35:5-6, 요9:35-41  
선포를위한찬송 ↑ 시편146편(3-5)  
설교 ↓ 설교자

## 누가 땡인인가?

아멘송 ↑ 찬송가643장

## 성례시행

세례식 ↓ 필요시 시행  
성찬식 ↓ 초대 신앙고백 찬송가377장(1-2) 구제헌금 분병 분잔  
목회기도 ↑ 설교자

## 봉사사역

봉헌및봉헌찬송 ↑ 찬송60장

## 폐회

\* 강복선언 ↓ 설교자

\*는 일어서서(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가셔도 됩니다)

47739

부산시 동래구 명륜로 261-1  
예배당 051) 558-4890  
목사관 010-4564-4890  
www.dcpchurch.com

<b>주일오후예배</b>	오후 3시	인도 양주동 목 사 설교 이광원 강도사
교회소식		
<b>개 회</b>		
* 예배예로의부름 ↑	계19:6-7(교송)	
인도자 :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회 중 :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 축 복 의 인 사 ↓	벧후1:2(인도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앎으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 경 배 찬 송 ↑	시편111편(4-5)	
<b>신앙고백</b>		
* 신 앙 고 백 ↓	니케아신경	
* 감 사 찬 송 ↑	찬송 1장	
<b>말씀봉사</b>		
설교를위한기도 ↑	인도자	
성 경 봉 독 ↓	롬 1:1-17	
교 리 문 답 교 독 ↓		
선포를위한찬송 ↑	시편85편(3-4)	
설 교 ↓	설교자	
<b>복음으로 세워지는 교회</b>		
아 멘 송 ↑	찬송가643장	
<b>자비사역</b>		
봉헌및봉헌찬송 ↑	찬송24장(1a-1b)	
<b>폐 회</b>		
* 강 복 선 언 ↓	양주동목사	

주일설교를 기억하며(누가 맹인인가?)

1. 진리에 대하여 맹인이었던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신 주님의 말씀을 더 밝히 보며 가까이하도록
  2. 교회 안에 영적인 맹인과 귀머거리가 있다면 주의 성령께서 눈을 밝히시고 귀가 들려지도록
  3.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심판가운데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도록
- 신앙의 전수를 위하여**
1. 부모된 자들이 자녀들을 위하여 신앙의 본과 주의 말씀과 신앙의 교훈들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2. 복음의 진수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신앙을 전수하여 더 많은 건전한 교회들이 세워지도록
  3. 세상의 풍조와 거센 압력들을 이기고 거룩한 복음을 전수하는 강건한 직분자들과 부모가 되도록
- 교회의 시대적 사명을 위하여**
1. 이 세대를 분별하여 세상의 원리를 중용하는 유혹을 능히 파하고 진리의 복음을 굳게 붙잡도록
  2.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위대함을 먼저 의뢰하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3. 주께서 세우신 직분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은사를 따라 섬기며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도록
- 국가와 위정자를 위하여**
1. 대통령이 주께서 주신 권위를 바르게 사용하여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생각하는 의를 이루도록
  2. 정부와 입법부와 사법부와 모든 관공직자들이 교회들과 순수한 관계를 바르게 유지할 수 있도록
  3. 세상의 빛이 돼야 할 교회가 진리를 따라 행하며 권세에 바르게 복종하고 기도하기에 힘쓰도록

화평함과 거룩함 중 하나만 좇을 수 있을까요?

양주동목사

지난 금요기도회 때에 '교회는 "화평함"과 "거룩함"을 둘 다 따라야 한다'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생각해보면 '화평함'을 좇는 교회는 '거룩함'을 놓치는 것 같고, 반대로 '거룩함'을 좇는 교회는 '화평함'을 놓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화평함만을 좇는 교회라고 해서 정말로 화평함을 잘 좇고 있는 걸까요? 화평함을 좇는 교회라 하면, 소위 '복음주의 교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WCC와 같이 교회일치운동을 하는 협의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일치" 또는 "화평함"이라는 기치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과 화합하려고 합니다. 좋은 시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도 화합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화합하기 위해서 정작 가장 화평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놓쳐버립니다. 그러면 정말로 화평함을 좇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거룩함만을 좇는 교회도 그렇습니다. 거룩함을 위해서 화평함을 소홀히 한다면 정말 거룩함을 잘 좇을 수 있을까요? 그런 교회라 하면, 소위 '개혁주의 교회'가 있을 수 있겠네요. 알만한 사람들은 개혁주의 신앙을 표방하는 교회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진 오만함과 독선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지들만 옳냐'라고 비판을 합니다. 이런 비판도 영 틀린 말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거룩함을 좇으려다 보니 거룩하신 주님의 몸을 찢어버리는 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몸(교회)을 찢어버리는데 어찌 참으로 거룩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화평함도 거룩함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화평함도 거룩함도 모두 이뤄집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이 될 사람은 누구나 환대하셨습니다. 병자나, 창녀나, 세리나, 죄인이나 모두 환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거룩하다 여기는 오만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에 대해서는 늘 질책하셨습니다.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고 주님께로 나아온 자들과 '화평'을 이루시고, 그들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교만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오지 않는 자들과는 '화평'하게 지내지 않으시고, 그들을 당신의 '거룩함'에 참여하지도 못하게 하셨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화평과 거룩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 없다면 그 무엇도 없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둘 중에 하나만 좇으려 한다면, 애초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응당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에게서 이 둘이 시작되고, 우리 주님 만이 이 둘을 모두 소유하고 계시니까요.

이번 주간 암송(하나님의 기쁨)

스바냐 3:17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말합니다. 이 신령한 은사는 흔히 말하는 신유, 축사, 방언 등이 아닙니다. 바로 복음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나누어 준다’고 표현하며, 교회가 이 복음을 통해 서로 위로받고, 교제 가운데 피차 안위함을 누리길 바라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전반에서 성도의 교제를 강조합니다. 복음을 통해 주어진 은사로 서로를 섬기고, 화평과 덕을 세우며,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서로를 기쁘게 하도록 권면합니다. 복음은 교회가 견고히 서는 기초이며, 피차 안위함은 그 복음의 실현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로마 교회에 가서 사도적 복음 위에 기초를 쌓아 피차 안위함을 누리는 성도의 교제를 통해 교회가 더욱이 견고하게 세워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3.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고 말하면서, 자신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선언합니다. 이 복음에 대한 유대인의 인식은 나무에 달린 저주이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 그러합니다. 이는 복음이 전해진 순서입니다. 이 순서에는 하나님의 언약의 질서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 주어졌고, 유대인들이 이를 거부함으로 인해 이방인들에게로 확장되었습니다.

복음에는 또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이것은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구속의 선언이며, 오직 믿음으로 그 의를 덧입을 수 있습니다. 하박국의 인용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삶의 방식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며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바울은 교회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하며 견고히 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결론

복음은 교회의 중심입니다. 복음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며, 믿음이 자라나고, 순종의 열매 맺으며, 교회는 견고히 서게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복음 위에 서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과 공동체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라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이 볼 때 미련해 보이고 부끄러운 십자가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기에는 우리는 자랑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며 복음으로 서로를 안위하고 세우며, 복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동래연합교회 가정기도회[2025년 6월29일 주일오전]

신앙고백	.....	사도신경
찬 송	.....	찬 355장
성경봉독	.....	요9:35-41,사35:5-6
설 교	누가 맹인인가?	부모대독
기 도	.....	부 모
주기도문	.....	다 같 이

주제 :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맹인된 자가 보게 되고, 보던 자가 맹인되었다”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자를 고쳐주셨지만, 산헤드린이 그 사람을 유대교 밖으로 쫓아내었고,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다시 만나셨습니다.

1. 고침받은 자를 다시 만나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고침을 받은 자가 유대교에서 출교되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친히 찾아가셨습니다. 그때 그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지만, 예수님께서 ‘(너를 고쳐준) 인자(단7:13)를 믿느냐?’고 물으실 때 곧장 이 인자를 메시아로 믿는다고 고백합니다.(36) 이 맹인이었던 자는 자신의 눈을 고쳐주신 인자를 본 적이 없지만, 그가 선지자들이 말하였던 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임을 알고 믿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종교지도자들은 빛이신 예수님을 보고도 배척하며 죽이려 했지만, 빛이신 예수님이심을 보고도 알지 못하는 이 사람은, 자신에게 빛을 선물로 주신 분을 시인하면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믿고 영접하려고 합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 질문은 고침을 받은 자에 대한 우리 주님의 초청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는 누구든지 내쫓겠다’고 선언한 유대교에서 쫓겨난 이 사람! 주님은 이제 ‘예수님은 선지자이시며, 하나님의 보내신 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사람을 아버지 앞에서 시인하시며,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마10:32-33)

놀랍게도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이 당대의 바리새인들에 비해 전혀 성경에 대한 이해가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구속사를 더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30-33, 참,사35:5-6) 그러기에 그는 이제 “너의 눈을 뜨게 한 인자를 믿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그는 어떤 주저함도 없이 “그가 누구이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라고 분명하게 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표적과 기사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도 끝내 예수님을 배척하고 정죄하며 비난하는 바리새인들과 종교지도자들 앞에서, 이 사람은 더욱 분명하게 주를 시인할 뿐 아니라, 더욱 확실한 신앙고백으로 자라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맹인된 자에게 심으신 믿음은 살아 있는 믿음이며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으면 받을수록 점점 자라, 시절을 좇아 열매를 맺습니다.

2. “맹인이었던 자에게 당신을 보이신 예수님”

예수님께서서는 유대교에서 쫓겨나면서도 ‘예수님을 믿고자 한다’는 그 사람에게 구원에 이를 만한 믿음이 있음을 보시고, 즉시로 당신을 계시하셨습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던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죄와 사망의 권세가운데 죽었던 우리의 영

혼을 살리시고, 오늘도 그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예배 중에 성찬상을 통하여 만나주십니다. 성령으로 만나주시고, 더 확실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고침받은 자에게 ‘네가 (그를) 보았다’(37a)고 할 때 이 말은 그 사람이 맹인이었을 때에 이미 참된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그때 그는 이미 메시아를 만났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때 이미 맹인이었던 자에게 당신을 나타내셨고, 알려지셨고, 믿어지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한 가지 그가 고침을 받은 후 바른 신앙고백 가운데 주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고침을 받은 자가 구약에 예언되었던 인자를 믿는다고 고백하였을 때에 주님은 친히 당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37b) 주님은 우리 더러 ‘구원의 말씀이 네 곁에 있으며, 네 생명의 빛이 항상 너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선지자들이 말하던 분임을 알게 되자 곧장 “주여! 내가 믿나이다”라고 고백하며 절(경배)을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가장 잘 알고, 그 말씀대로 산다는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 예수를 저주하며 죽이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서 신적인 권위와 위엄을 발견하였고, 경배의 대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이 사람의 경배를 거절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시는 방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성경입니다. 주님은 여전히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당신을 나타내시고, 만나시며, 영접하십니다.

3. “맹인된 자를 고치심으로 눈뜬 맹인들을 심판하시는 예수님”

고침을 받은 자의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듣는 자리에서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39)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보내신 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보는 자들과 보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판단입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셨을 때에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는 눈을 뜨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성경과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을 연구하고, 예수님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던 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줄 알고 있다고, 어디서부터 왔는지 안다’고 주장하던 이들은 맹인이 되어 예수님이 구주이신 줄을 보지 못하여 결국 죄 가운데 거하여 주님의 영원한 심판을 벗어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맹인이었던 자는 종교지도자들에게 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과정에서 그는 육신의 눈뿐 아니라 영적인 눈도 뜨게 되어 예수님에 대한 신앙고백이 점점 명확해졌습니다. 반대로 재판관이 되어 이 고침받은 자를 심문하던 자들은 점점 더 그 눈이 어두워져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주님은 맹인이었던 자는 그 심판의 자리에서 더 밝은 영안을 가져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유대인들이 스스로 맹인이 되도록 심판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이 심판의 결과는 그 효력이 바로 나타났습니다. 심판의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맹인임을 알지 못하였고(40) 주님은 이들에게 “너희가 맹인이 되 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41)고 하심으로 서 맹인이 아니라고 하면서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보지 못한다면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고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아멘

동래연합교회 가정기도회[2025년 6월29일 주일오후]

신앙고백	.....	사도신경
찬 송	.....	찬 508장
성경봉독	.....	롬 1:1-17
설 교	복음으로 세워지는 교회	부모대독
기 도	.....	부 모
주기도문	.....	다 같 이

주제: 교회는 복음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로마 교회는 로마에 살던 유대인들이 오순절 성령님께서 강림하시는 일을 예루살렘에서 겪고 로마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을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0절에는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된 유대인들과”라고 로마에서 온 유대인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로마의 교회는 복음을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 기초가 튼튼히 서지 못했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원하고 열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교회에게 편지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밝히고, 교회가 복음의 기초 위에 견고히 서야 함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복음으로 세워지는 교회의 중요한 세 가지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1. 믿음으로 순종한다.

바울은 5절의 말씀을 통해 자신이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은 중요한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가 이 사실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16장 26절에서도 다시 이야기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편지의 서두와 결말에서 반복된다는 점은, 복음을 아는 것 뿐 아니라 ‘믿어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하는 것이고 이것이 이 편지 전체의 핵심 목적임을 보여줍니다.

로마 교회는 사도적인 가르침 없이 세워졌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과 자기 의로 인한 오해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원리를 통해 복음의 내용과 그 복음을 믿어 순종하는 원리를 가르칩니다.

먼저, 복음이 무엇인지 가르칩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은 순종을 동반합니다. 복음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회개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바울은 복음을 믿고 순종함으로 교회가 굳게 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2. 신령한 은사(복음)로 피차 안위함을 얻는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가기를 간절히 원하며 그 이유로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